“동부 돈바스에서 우크라군 분산시키려는 목적” 지적도  
  
  
  
  
  
  
  
1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 대피소에 도착한 피난민들의 모습. 하르키우/AFP 연합뉴스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공세를 계속하면서 12일(현지시각) 4개 마을을 추가 점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동부 전선에 포진해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하르키우의 하티시체, 크라스네, 모로호베츠, 올리니코베 지역을 추가 점령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들은 하르키우시에서 북쪽으로 30㎞ 떨어진 립치 지역 인근으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이곳까지 점령하면 인구 100만명이 넘는 하르키우를 포격 사정권에 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2022년 개전 초기에도 북쪽 국경을 가로질러 하르키우를 둘러싼 순환 도로까지 진격한 바 있다.러시아군은 두 방향에서 공격을 진행해, 전날 하르키우에서 북동쪽으로 70㎞ 떨어진 보우찬스크를 겨냥한 공격으로 인근 5개 마을을 점령한 바 있다.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도 히르키우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다”며 우크라이나군은 8곳의 공격 지점에서 9개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다만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손실된 영토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격을 받은 이날 밤 낸 영상 메시지에서 “현재 ‘회색 지대’에서 ‘전투 지역’으로 바뀐 마을들이 있다. 점령군들은 일부 마을에서 거점을 확보하거나 단지 전진하기 위해 가는 마을도 있다”며 보우찬스크 지역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은 보도했다. 보우찬스크엔 1만9000명가량이 거주했지만 현재는 500명 정도만 남아 있다.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을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하르키우 공습에 배치된 러시아군 규모가 3만5000명 정도의 2개 군단급으로, 하르키우시까지 점령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전직 관료가 운영하는 군사 분석 그룹인 ‘프론텔리전스 인사이트’는 “러시아군은 여러 국경 지점에서 소대 또는 분대 규모 부대로 소규모 공격을 수행했고, 일부는 큰 저항 없이 국경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우크라이나군을 기존 방어 진지에서 끌어내는 데 이미 부분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선 10층짜리 아파트가 일부 붕괴돼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포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아파트는 토치카-U 미사일 파편에 의해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벨고로드는 하르키우와 약 75㎞ 떨어진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지점이 됐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비시(BBC) 방송은 “우크라이나는 이번 일이 러시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투하한 유도폭탄으로 벌어진 것일 수도 있다며 (러시아)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아파트 붕괴로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